

지 상 법 석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尚의 참선요지 ⑨

也不是從我肉身的
아름시종아 육신기적
若是從我身或口起的
약시종아신혹구기적
我若死了我的身心在何處不能念了呢
아니차로 이적신구제 아이불능념료니
當知此一念是從我心起的
당지차일념시종아심기적
即從心念起處一應現現定
즉중심념기처 일저저정

用功多年 經過一番煅煉
용공다년 경과료일번단련

이때가 되면 마치 물 마실때 차고 뜨
거운지를 절로 아는것같이 곧 걸림없는
자리에 이를 것이니
교차로에서 친아버지 만난 것처럼 자
유 자재한 편안함을 얻으리라.
노참자의 어렵고 쉬움이란 어떤 것이
가.
이름바 노참이란 옛 선지식에 가까운
이름 가리킴이니
공부가 오래이고 한차례 단련을 거쳤
으므로

또한 내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
니다.
만약 내 육신따라 혹은 입속에서 나
왔다면
나 죽은 후에도 내 몸과 입은 오히려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한 생각 날 수
없는 것이라.
마땅히 알지니 이 한생각은 나의 마
음을 따라 일어났으며
곧 마음따라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뛰어지게 살필지이다.

身心純熟 理路清楚 自在用功 不感辛苦
신심순숙 이로청초 자재용공 불감신고
老參上座的難處 就是在此自在明白
노참상좌적난처 취시제차자재명백
當中悟生了 中止化成 不礙所
당중정주료 중지화성 부도보소
能靜不能動 不能得真寶受用
능정불능동 불능득진실수용
甚至環境 生情取捨如故 欣慶宛然
심지혹경 생정취사여고 흥연완연

難直去 如滅海龍
맥직간거 여묘포서
全副精神集中于此 沒有二念
전부정신집중우차 불유이념
但要緩急適度 不可操之太急 發生病障
단요완급적도 불가조지태급 발생병장

몸과 마음이 폭 익었고 이리가 맑아
있어 자유롭게 공부 할 수 있으니 힘걸
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이것이 노참의

“한 생각은 내 마음따라 일어났으니
생각 일어난 자리 뛰어지게 살피라”

行坐臥臥 都是如此 日久功深 瓜熟蒂落
행주좌와 도는如此 日久功深 과숙체락
因緣時空 觸著措著 忽然大悟
인연시공 촉착조착 홀연대오

쉬운 것이다)
노참의 어려운 자리란 자재롭고 명백
한데 있으니
중간에 이르러 머물고 말아 보배창고
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또 능히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음에 참
다운 수용의 경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경계에 부딪혀 취하고 버리
는 뜻을 내는 까닭에 좋아하고 싫어함
이 완연하여

은 정신을 똑바로 말라듯 물이 가되
마치 고양이 쥐 잡듯이
집중하고 집중하면 한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다만 느려도 안되고 급해도 안되고
적당해야 하므로 너무 급히 굴면 안된
다. 병과 장애가 생긴다.
행주좌와중에 모두를 이같이 하여 날
이 더하고 공부가 깊어지면 오기가 익
어 절로 폭지가 떨어지듯이
시절인연 이르러 잡거나 놓고나 홀연
히 크게 깨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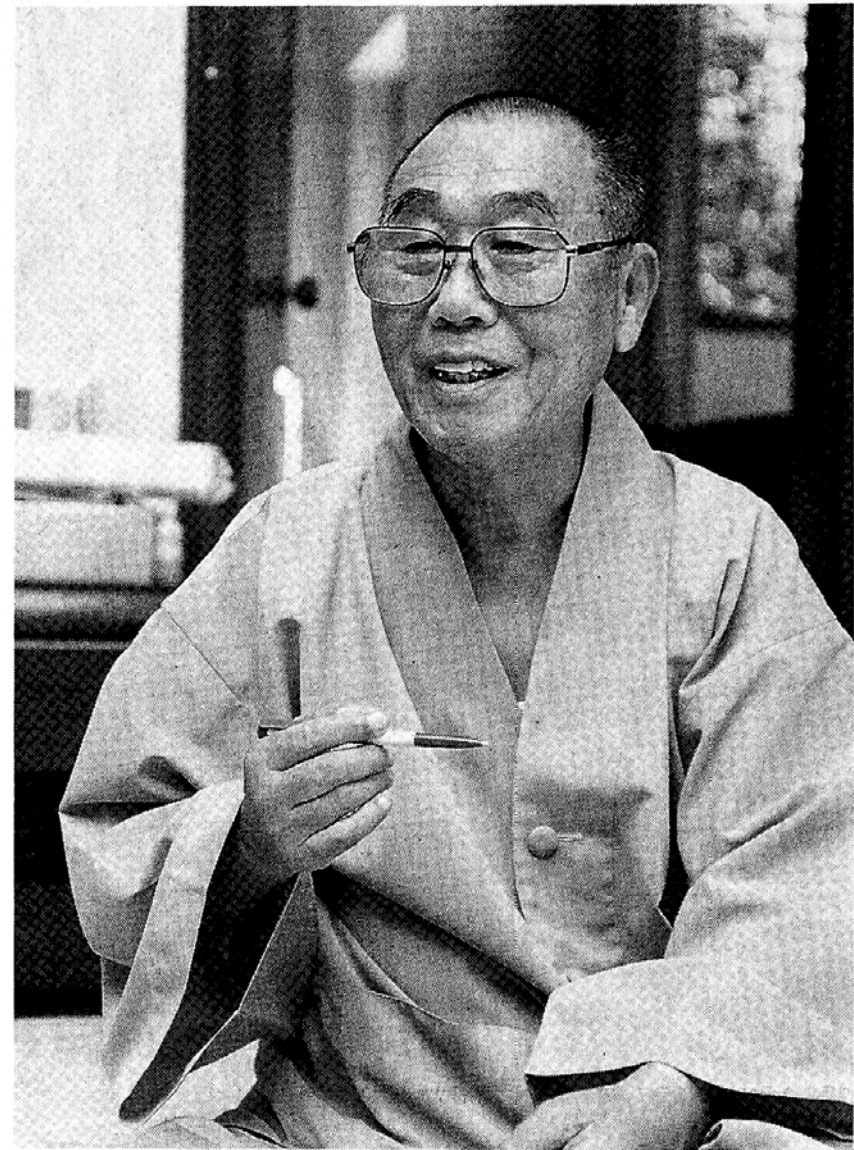
細細妄想 依然牢固
조세망상 의연외고
所用功夫 如冷水泡石頭 不起作用
사용공부 여랭수포석두 불기작용
久之也就疲下去 終于不能得果起用
구지야취피해하거 중유불능득과기용

此時如人飲水 冷暖自知 直至無礙之地
차시여인음수 랑난지지 직지무애지지
如十字街頭見親爺 得大安樂
여십자가두경친야 득대안락
老參的難易如何呢
노참적난이여하니
所謂老參 是指親近通善知識
소위로참 시지친근과선지식

크고 작은 망상이 자연히 감춰처럼
곧어져
공부하는 바가 얼음물거품이 바위에
부딪치듯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화
두를 보기 어렵다)
그렇게 오래되면 피로하고 게을러지
며 마침내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된다.
龍眼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말

석천스님 (법성사 주지)



약 력

- 1912년 강원도 삼척 생
- 20세에 수덕사에서 벽초스님은 사모 득도
- 68년부터 교도소 찾이다니며 재소 지교회에 헌신, 현 안양 영등포 교도소 종교위원
- 해동불교 전문 대학장 총익인간 학회 이사장등
- 수상집 <깨달음의 이야기> 펴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
다. 증생계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고 온갖 동물과 미생물들 그리고
무생물까지 모두 얽히고 설켜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별나게 드러나지 않
고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이 이 증
생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두루두루 섞여 사는 이 증생계에도 나름대
로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이나 미생물들의 삶에
도 질서가 있어서 그 집단을 이어 가는 것
입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는 그 집단으로
부터 질책을 받거나 추방을 당하는데 그것
은 그 집단의 법이 정하는대로 시행하는
집단적 의사표현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민족 국가를 비롯 형성된
사회 단위별로도 매우 미세하게 질서와 법
을 구별해 두고 삽니다. 이것을 두고 만들
의 영장다운 일이라고 자랑을 해야 할 일
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하면 많은 법을 두
고 살아야 하는 인간은 그만큼 더 어려서
은 존재라는 말이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인류의 발전이란 파괴와 혼돈의 결
과를 불러 온 역사일 뿐입니다. 자연 속에
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다

“부처님 가르침은
복잡한 세상에서도
항상 희망과 용기
복돌아 줍니다”

다음생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인데 우리는 자연을 연구분석해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이 갖는 질서를 변형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대봤자 자연 앞에
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존재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칠만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
고 몇달만 비가 안오면 한밭에 속대웁니다.
산사태가 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
해일이 이는데, 이 자연의 흐름 앞에 인간
은 언제나 빈손 밖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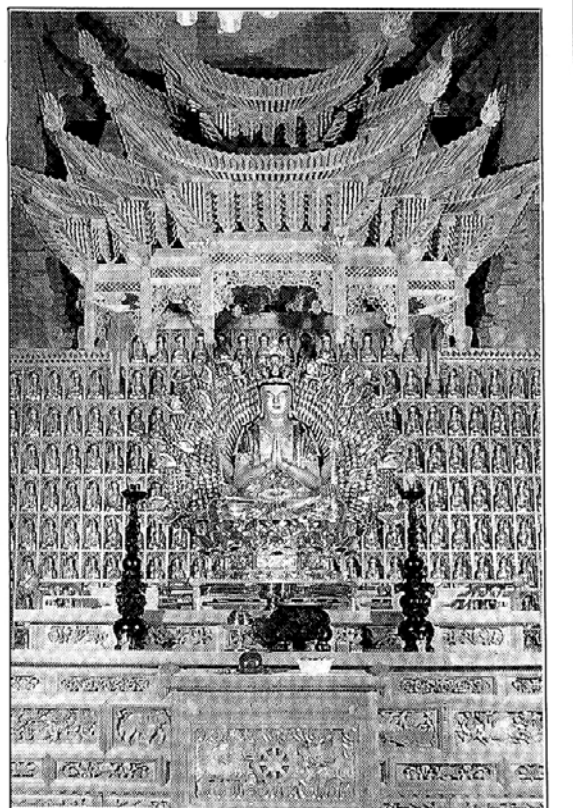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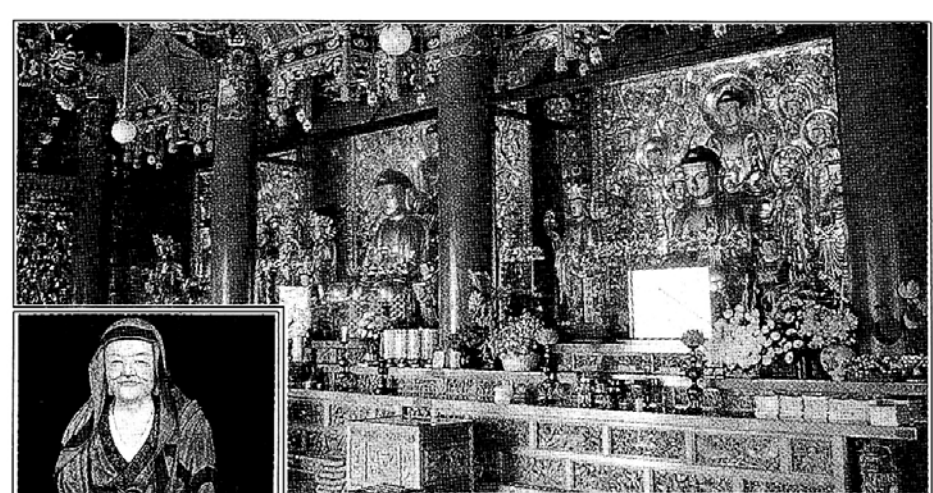
천할 위대한 법이 있음을 알기에 늘 행복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을 희망으
로 살수 있는 길을 얘기해 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합
니다. 내 이웃과 잘 지내는데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 다시말해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
입니다.
옛날에 이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
느 날 그는 약산의 유엄선사를 찾아가 평
소 공경해 하던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스님 (법회경) 관세음보살품에 보면 혹
풍이 배를 밀어서 나갈 귀신의 나라에 떨어

어뜨린다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대체 무엇
입니까?”
이교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
엄선사는 다짜고짜 큰소리를 지르며 이교
를 야단치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놈, 이교야. 그대 같이 어리석은
소인이 그런 것을 어찌 알아서 내게 묻는
것인가. 또 이치를 알아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지금 모른다고 내게
물은 그것을 설명 내가 가르쳐 준다 해도
아마 그대는 잘 알지 못할 터인데.”
이교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도가 높기로 소문이 난 스님이지만 한
순간에 자신을 멸시해 버린 것이 못내 속
이 상했던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담장이

라도 감히 누구에게 그따위 말버릇이나고
호통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유
엄선사여서 이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
었습니다. 마음 속에서 불 같이 솟아 오르
는 화를 어찌지 못해 이교는 얼굴만 울그
락 붉으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엄선사가 빙그레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
로 말했습니다.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지금 선생께서는
저의 방자한 말 때문에 크게 화가 나서서
진심(眞心)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생의 얼굴 표정이 마치 나찰 귀신 같고,
저를 원망하심이 바로 혹풍이 일어나서 배
를 나갈 귀신에게 떨어뜨린다 하는 것이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행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달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